

하모니로 하나된 현장 무재해로 현장 정리

대림산업주식회사 SK광양 복합화력 현장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날씨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발전소가 시운전 열기에 뜨겁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재해 열기에 뜨거워 겨울의 잔기운도 얼씬하지 못한다.



전남 광양시 스래그 매립장 66,000평부지 위에서 자연 앞에 당당히 무재해의 현장으로 건설되고 있는 SK광양 복합화력 현장은 대림산업주식회사가 기본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은 물론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 Full Turn-Key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2003년 11월 착공하여 2006년 6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현재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이 곳은 하루 최고 출역인원이 9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무재해 끈은 오늘까지 이어져, 앞으로 다가올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는 이어간다.

무재해 SK 광양 복합화력에는 모두가 형제처럼 따뜻한 마음이 있고, 어우러짐이 있어, 지역 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도 감사패를 받는 아름다운 풍경도 이 곳에서는 볼 수 있다.

따뜻한 현장분위기 조성! 무재해 원동력 ■■■

현장에는 호루라기나 확성기가 없다.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위해 사용되던 물건이 자칫 근로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곳 현장에서는 모두 철수 시켰다.

강압적이지 않은 따뜻한 마음으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고, 여기서 무재해의 해답을 찾고 있다.



▲ 한경수 현장소장

이러한 분위기는 아침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체조장에는 통상적으로 협력사 근로자들의 줄이 따로 있고, 직원들과 현장 소장이 체조를 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관경이다. 그러나 이 곳 현장은 “근로자 속으로 운동”을 통해 근로자들과 하나가 된다. 한경수 소장이 가장 먼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사를 나누며, 서로 안마와 스트레칭, 스킨십을 통해 근로자들 속에 동화된다.

처음에 쑥스러워 서로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근로자들이 지금은 먼저 다가와 이야기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처럼 따뜻한 분위기는 현장에 녹아들어 무재해 SK 광양 복합화력의 원동력이 된다.

무재해의 하모니가 현장에서 울려 퍼져 ■■■

발주처인 영국 BP사에서 “한국은 강압적이고 우월의식이 강한데 이는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현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한경수 소장은 주저 없이 “하모니”이라 답하고, 현장 곳곳에 하모니의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북소리를 낼 때는 북소리를 내고 팽과리가 소리를 낼 때는 팽과리소리를 내어 소음이 아닌 하모니를 이끌어 내는 것과 같이 이 곳 현장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로 현장을 이끌고 있는데, 근로자들 왼쪽 가슴에 옷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모니빠지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빠지는 안전교육장을 지키고 있는 오창남 안전과장이 신규근로자들에게 안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달아주는 빠지로 “조심, 안전”의 경각심을 항상 불어 넣어 주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과 조정으로 갈등을 풀어 전 조직이 한마음으로 단합한다.





맺음 말 ■■■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배려”와 “관심”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는 이 곳 현장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스스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ASO기법을 비롯해 하나가 되어가는 족구대회, 탁구대회, 지역을 생각하는 지역주민봉사활동에서 표어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에 이르기까지 이벤트를 통해 자율안전을 뿌리내려 새로운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안전을 생각하는 시간,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에 안전 빼구기 소리는 준공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이 곳 식구들은 하나가 되어 단한사람의 상해도 없이 보람 있게 현장을 마무리한다.

끝으로 2006년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함께했던 지난날의 결실을 맺는 해인 만큼 대림산업주식회사 SK 광양 복합화력 현장 가족의 축복이 있길 기원한다.



〈최종택 기자〉